

통합미술치료가 발달장애 아동의 모-아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Integrative Art Therapy on Interaction Promotion of Mother and Child with Developmental Disorder

박차영 · 홍은주**

느티나무 원광예술심리연구소 예술치료사 · 두원공대 아동복지과 전임강사

Park, Cha-Young · Hong, Eun-Joo

Wonkwang Art Therapy Center · Doowon Technical College, Dept. of Child Welfar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integrative art therapy affected the interaction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order with their mothers from the viewpoint of object-relation theory that accentuated mother role for the promotion of mother-child interaction, and based on earlier studies o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the interaction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order with their mothers. The subjects in this study are five selected children and their mothers who used B and G social welfare agencies in Gyeonggi province. They are at the age of five and six in Western age, and have difficulties interacting with their parents. When a social maturity test is conducted, their social age ranged from 2.1 to 3.9, and as Portage Test is implemented, their developmental levels of sociability, cognition and language were identical to those of younger children who were at the age of one to 3.5.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hildren who suffered from developmental disorder and participated in this study showed a positive change in their interaction with their mothers. Second, as for connections between each session and mother-child interaction, most of them came to interact with their mothers better as the program came to an end.

Key Words : mother-child interaction, integrative art therapy, developmental disorder

I. 서론

발달장애는 발달기에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 기능의 획득이 장애를 받고 연령적으로 기대되는 발달의 평균상태에서 양적, 질적인 왜곡, 일탈을 보이고 그 장애의 특징적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태를 칭한다(송영혜, 2000). 최근 의료기관이나 장애관련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지체된 어린 아동들을 진단할 때,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라고 진단한다. 이러한 발달장애 아동들은 어머니와의 초기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눈맞춤, 안아주려고 할 때 예기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 낮가림, 까꿍놀이 등과 같은 행동이 지연·결여되거나 질적인 손상을 보인다. 이와 같

은 모-아 상호작용의 어려움은 지적인 결함과 영아기에 발달하는 타인과의 정서적인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초기 발달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다(Mash & Wolf, 1999).

따라서 타인과의 정서적 경험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의 초기 모-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은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결함을 개선하는데 중요하다. 이에 발달장애 아동의 모-아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시도들이 최근에 간호학, 아동상담학, 발달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의 연구들(김정미, 2001; 박량규, 1999; 임숙빈, 1997; 정수진, 2003)은 장애아동의 부모를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훈련 혹은 교육시키거나 부모가 참여한다고 해도 치료자가 지시하는 대로 부모가 따라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모-아 상호작용의 자연스러움을 방해하고, 부모의 변화는 강조하면서도 아동의

* 본 연구는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Corresponding author: Hong, Eun-Joo

Tel: (031) 670-7192

E-mail: eunjooHong@hanmail.net

변화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모-아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다. 따라서 아동의 변화가 부모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발달장애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표현을 하는 표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적 관계를 형성한다(박량규, 1999). 발달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는 아동의 요구나 수행수준을 고려한 상호작용을 하기보다는 정상아동을 둔 어머니에 비해 더 지시적인 행동을 한다(김정미, 2001).

모-아 상호작용은 아동발달에서 정서적·사회적·인지적·언어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곽아정, 1995; 김이선, 1992; 김정미, 2001; 민성혜, 2000), 이후에 학교적응이나 사회적 발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상희, 2003). 따라서 최근에는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 기능 촉진, 사회성 증진, 상호작용 증진, 관계 증진 등의 프로그램들이 생의 초기에 형성되어야 하는 부모-자녀 관계에 중점을 두면서 사회적 관계 향상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들(김정미, 2001; 박량규, 1999; 임숙빈, 1998; 정수진, 2003)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미술치료는 미술이라는 시각매체를 사용하여 심리적인 적응과 치유를 돕는 치료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통합'이라는 용어가 붙는 통합미술치료는 미술을 주 매체로 사용하고 치료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른 예술 매체를 연계시켜 상호 통합적으로 치료에 적용하는 것으로 다양한 매체들을 미술치료 영역 안에 통합시키는 접근이다(김현미, 2003). 이는 미술치료가 가지고 있는 치료적 특성을 동화, 이야기, 시, 음악, 무용, 연극, 팬터마임 등의 치료와 연계시키는 것이다. 다양한 예술 치료적 접근 중에서 미술치료는 매체의 특성과 접근방법이 다양하여 다른 예술매체와 통합하여 사용하기가 용이하다(김현미, 2003). 또한 다양한 미술매체는 발달장애 아동의 감각활동을 촉진하며, 변화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켜주고, 이는 곧 사회적응의 확장을 가져온다(신은하, 2004). 최근에는 미술치료가 발달장애 아동이 지닌 창조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자유로운 자기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 언어, 운동,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술치료적인 접근들(김소정, 2003; 김수정, 2004; 서은영, 2004; 이승아, 2003; 이영훈, 2002; 하민경, 2003; 한영희, 2003)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 아동에게 어느 한 분야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들의 새로운 자극에 대한 민감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예술매체가 서로 상호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신은하, 2004). 미술은 미술매체의 특성상 다양한 재료를 다루고 광범위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의 통합이 수월하다.

더구나 비언어적인 매체를 이용해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점과 창의적인 부분의 치료적인 효과를 상승시키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예술치료 분야에서 폭넓게 통합되고 있다(김현미, 2003).

더욱이 부모-아동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모-아동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이론을 기초로 통합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초기 부모-아동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이론 중에서 Winnicott(1971)의 대상관계이론은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아동과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적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Winnicott은 아동의 발달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아동의 충분한 성숙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전하고 좋은 환경 중에서 생후 초기의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을 "충분히 좋은 환경"이라 하였고,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은 "충분히 좋은 어머니"라고 설명하였다. 즉, 아동과 어머니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정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중요하며, 아기의 발달에서 엄마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Winnicott 이론 중에서 모-아 상호작용과 관련된 모성 돌봄 환경으로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아주기"는 의존적인 유아가 필요로 하는 "촉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모성적 보살핌으로 아동에게 심리적 의미에서 지원과 지지를 제공한다. 통합미술치료를 하는 공간과 재료, 치료자는 아동에게 "안아주기"를 제공하는 전체적인 환경이며 "촉진적 환경"이다. 발달장애 아동은 변화에 대한 적응이 더디므로, 치료실과 재료는 충분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 아동 자체가 일관성있게 반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치료자와 어머니는 아동에게 일관되게 반응하며, 아동과 활동을 하기 전에 언어적으로 표현하여 접근을 예고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아주기를 해야 한다.

둘째, 적절한 "다루기"는 유아에게 몸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게 하고, 자기가 몸 안에 그리고 몸 전체에 거주한다고 느끼게 하여 몸과 정신의 통합을 이루게 한다. 통합미술치료에서 "다루기"는 신체 접촉을 통하여 신체적인 안락함을 느끼게 하는 마사지와 자신의 신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손유희와 같은 동작 그리고 곡류, 전분류, 점토류를 신체로 탐색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신체를 이용한 움직임, 탐색, 부드러운 접촉 등은 발달장애 아동의 초기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눈맞춤, 안아 주려 할 때 기대하는 자세, 까꿍 놀이 등에서 보이는 결합을 다루어 줄 수 있다.

셋째, 대상은 사물보다는 사람, 사람의 부분에 더 자주 적용되며, 따라서 "대상제공"은 아기에게 인간관계 및 공

유하는 전체 현실세계를 소개해 주는 것이다. 아기가 인간 이외의 환경을 사용하는 것은 그에 앞서 인간환경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통합미술치료 환경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면서 발달장애 아동의 욕구에 어머니가 반응한다. 이 반응은 전능경험을 이끌어내서 발달장애 아동이 자아인식을 하게 하고, 성취감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경험은 발달장애 아동에게 자기 이외의 세계와 접촉하고 탐색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따라서 어머니와 치료자는 발달장애 아동에게 대상이 되어주고 대상사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달장애 아동은 어머니 전체 또는 치료자 전체를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상사용의 경험은 발달장애 아동에게 인간관계 경험으로 확대되어 모-아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넷째, “반영하기”는 상호성에서 중요한 측면으로 아동은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본다(Winnicott, 1971). 통합미술치료에서 “반영하기”의 사용은 아동의 행동을 어머니가 모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모방을 통해서 아동은 자신의 모습을 어머니에게서 볼 수 있으며 “참자기”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어머니는 아동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시적이기보다는 비지시적이어야 하고, 아동의 주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반영하기”는 발달장애 아동의 자아인식을 촉진하고, 타인인식으로 확대되어 모-아 상호작용을 돕는다.

다섯째, “놀이하기”는 중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데 통합미술치료 공간과 활동이 중간영역이 된다. 통합미술치료는 다양한 재료를 탐색하는 것과 작품을 창조해내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놀이의 형태를 띠게 된다. 따라서 놀이는 모든 회기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발달장애 아동들이 수행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작품 창조도 대부분 놀이의 특성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발달장애 아동과 어머니가 치료실을 방문하는 것 자체는 놀이가 가능한 중간영역을 방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놀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놀이는 발달장애 아동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한다.

여섯째, Winnicott의 이론에서는 치료과정의 “퇴행”을 환경 또는 대상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진 것이며, 아동에게 자기를 받아들여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대상관계이론 입장의 통합미술치료는 예술매체를 “중간대상”으로 사용하여 내담자를 유아시절의 상태로 안전한 퇴행을 가능하게 한다(신은하, 2004). 이러한 퇴행은 신뢰감 회복의 효과가 있어서 어머니와의 초기 대상관계를 재형성한다. 또한 어머니의 퇴행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은 발달장애 아동의 이전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충족해서 긴장을 이완하게 하고, 자기 자신이 사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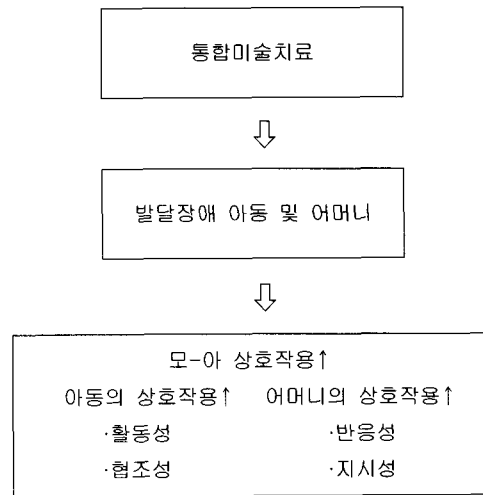
럽고 소중하다는 내면적 상을 형성하게 한다.

대상관계이론을 기초로 한 통합미술치료는 다양한 예술매체의 상호 통합적 접근으로 발달장애 아동과 어머니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아기에 발달하는 타인과의 정서적인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초기 발달상의 결함을 가진 발달장애 아동의 모-아 상호작용 증진에 유용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innicott의 대상관계이론에 기초한 통합미술치료를 발달장애 아동에게 적용하여 모-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 참여를 통한 통합미술치료는 발달장애 아동의 모-아 상호작용 증진에 효과가 있는가.
2. 어머니 참여를 통한 통합미술치료의 회기별 모-아 상호작용의 차이는 어떠한가.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B복지관과 G복지관을 이용하는 만 5세에서 만 6세 사이의 아동들로 종합병원 소아정신과와 개인 소아정신과 및 복지관 임상 심리사에 의해 ‘발달장애’로 장애진단을 받은 아동들이다. 발달

<표 1> 연구 대상

구분		A	B	C	D	E
아동	연령	5세 7월	5세	5세 7월	5세 8월	5세 3월
	성별	남	남	남	남	남
	형제순위	셋째	독자	둘째	둘째	첫째
	장애분류	발달장애	발달장애	발달장애	발달장애	발달장애
	SA (사회연령)	3.12	2.68	2.14	3.0	3.81
어머니	연령	41세	33세	40세	34세	31세
	학력	고졸	대졸	대졸	고졸	고졸
상호 작용 특징		A는 대인관계에 관심이 없고 상호작용 안된다. 어머니는 A에게 지시적이고, 경직된 상호작용을 한다.	B는 분노표출이 심하고 언어사용이 거의 없다. 어머니는 놀이상황에서 B를 존중해주는 것만 지시적이다.	C는 청각자극에 민감하며 언어 표현이 거의 없다. 어머니는 우울하고, 아동과 상호작용이 거의 못 한다.	D는 촉각자극에 민감하고 언어적 표현이 없고 상동행동이 많다. 놀이를 인정해주기보다는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지시한다.	E는 언어 표현이 많은 편이나 대부분 반항어를 사용한다. 어머니는 E의 행동이나 놀이에 지나치게 개입한다.

장애로 진단받은 아동들 중 부모-아동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연령이 2.1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포테이지 검사결과 사회성, 인지, 언어 영역의 발달수준이 1세 이상 3.5세 이하로 낮게 나타난 5명의 아동과 그 어머니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2. 측정 도구

1) 아동선별 평가도구 : 사회성숙도 검사, 포테이지 검사(Portage Checklist)

사회성숙도 검사(김승국, 김옥기, 1995)는 Doll의 바인랜드 사회성숙 척도를 보완한 것으로, 사회적 적응행동을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검사의 적용대상은 0세부터 30세까지 가능하다. 검사 항목은 117개 문항이 난이도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점수는 0점, 0.5점, 1점 등 3개의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 정도를 평가하여 대상아동을 선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포테이지 검사는 0-6세 아동용 발달 체크리스트로서 신변처리, 운동성, 사회성, 인지, 언어의 5개 발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시요령은 발달 영역별로 양육자가 아동의 연령을 찾아서 아동이 실시할 수 있는 항목에 표시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의 발달정도를 평가하여 대상아동을 선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2) 프로그램 효과 측정도구

① 어머니 행동 평정척도(MBRS : Maternal Behavior Rating Scales)

Mahoney(1999)가 개발한 어머니 행동 평정척도(MBRS)는 일상에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어머니의 행동유형을 간략한 형태로 측정할 수 있는 평정척도이다. 김정미 등(2000)이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연구를 통해 국내에서는 2개 요인 12항목이 적합한 것을 제안하였으며, 각 2개 요인은 '반응성 요인' 9개 항목, '지시성 요인'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되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2-6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상호작용 행동을 나타낸다. 단, 2개 항목은 역채점하며 1개 항목은 전환 채점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김정미(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다.

② 아동 행동 평정척도(CBRS : Child Behavior Rating Scales)

Mahoney(1999)가 개발한 아동 행동 평정척도(CBRS)는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는 아동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평정척도이다. 이 척도는 김정미 등(2000)의 타당도 검증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 2개 요인 7개 항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2개 요인은 '활동성 요인' 5개 항목, '협조성 요인' 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상호작용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김정미(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이 척도들을 사용한 이유는 어머니 행동 평정척도와

아동 행동 평정척도가 개별적인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관한 중재절차의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용이한 평정척도(Mahoney, Spiker & Boyce, 1996; 이상희, 2002 재인용)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미술치료 실시 전·후에 아동 상호작용의 변화 분석과 회기별 아동 상호작용의 변화 분석을 통해 통합미술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척도를 사용하였다.

3. 통합미술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의 통합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아동이 관계를 맺는 최초의 대상인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에 초점을 둔 대상관계 이론에 기반을 두고 긍정적인 부모-아동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Winnicott의 이론 중에서 안아주기, 다루기, 대상제공, 반영하기, 놀이하기, 퇴행의 개념을 기본개념으로 구성하였고, 모-아가 서로 자극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모-아가 함께 하는 본 프로그램은 초기 모-아 관계의 필수요소인 신체적인 접촉을 중요시하며, 아동기 초기의 모성적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대상관계 재형성을 도와 부모-자녀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구성한 것이다. 나아가 대상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고, 자율성을 수용하여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미술치료의 이해>(정여주, 2003), <유·아동의 발달을 돕는 미술치료의 실제>(이근매, 최외선, 2003), <유아미술치료>(신승녀, 정여주, 최재영, 2002), <유아미술치료2>(신승녀, 정여주, 최재영, 2002), <치료놀이 I>(성영혜, 2000), <장애아동을 위한 창조적 놀이활동>(이금진, 박현주, 이경미 공역, 1997)에서 발췌한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 단계에는 모성적 돌봄 환경인 “안아주기”를 통하여 아동에게 안전 기지를 제공한다. 아동은 안전기지에서 신뢰로운 관계형성을 하고 신체를 자각한다. 다양한 예술매체와 자기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다양한 감각재료를 통한 신체접촉을 경험한다. 중기 단계에서는 신체와 정신의 통합을 경험하며, 대상은 서서히 계속적으로 제공 되어진다. 이와 함께 대상에 대한 인식과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이끌어주도록 한다. 이 단계에는 안전한 퇴행을 통해 치료자와 어머니에 대한 안정감을 획득한 다음, 신체감각활동을 통한 자유로운 놀이적 접근으로 대상관계를 재형성

하고 대상표상 및 내적실행모델을 수정하여 모와 아동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종결 단계에서는 수정된 대상표상 및 내적실행모델을 통해 모와 맺은 관계를 확장시키고, 점차 긍정적인 모-아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본 프로그램의 각 회기는 도입, 전개, 마무리로 구성한다. 도입 단계에서는 먼저 로션 마사지와 음악과 함께하는 손유희를 통해 다루기와 안아주기를 경험한다. 전개 단계에서는 먼저 미술매체를 탐색한다. 탐색은 놀이의 형식을 빌어 신체활동과 신체접촉으로 이루어지며, 탐색 이후에는 더 구체화된 동작적 표현을 하거나 구체적인 작품을 창조한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작품을 마무리하고 작품에 대한 소개와 어머니들의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표 2>와 같다.

4. 연구 절차

사전검사는 선별검사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1주 전에 실시하였다. 사전검사에 참여한 아동과 어머니는 사회성 속도 검사와 포테이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과 어머니는 자유놀이 10분을 실시하였고, 자유놀이는 비디오로 기록하였다. 사전검사를 통해 5명의 아동과 그 어머니는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04년 8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 3회(50분) 총 15회 실시하였다. 객관적인 자료 기록을 위해 비디오 녹화를 하였다. 연구 장소는 비시에 위치한 사설 미술치료연구소였으며, 본 연구자가 주 진행을, 미술치료사 1인이 보조진행을 하였다. 사후검사는 프로그램이 종결된 일주일 후에 있었으며, 자유놀이 10분을 실시하고 비디오 녹화를 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실시한 자유놀이 10분을 촬영한 자료는 평정자 2(미술치료사 2인)인이 독립적으로 평가하였다. 5분간 녹화내용을 본 뒤에 1분간 ‘어머니 행동 평정척도’를 평가하고 이후에 나머지 5분간 녹화 내용을 보고 ‘아동 행동 평정척도’를 평가하였다. 사전에 2명의 평가자에 대해서는 평정척도에 대한 지침교육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상황을 녹화한 1, 3, 6, 9, 12, 15회기 비디오 기록도 회기별 모-아 상호작용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비디오 자료는 평정자 2인(미술치료사 2인)이 개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전반부 녹화내용을 본 뒤에 1분간 ‘어머니 행동 평정척도’를 평가하고 후반부 녹화 내용을 보고 ‘아동 행동 평정척도’를 평가하였다. 평정자간 신뢰도는 어머니 행동평정척도의 경우 0.86-1.00의 범위로 나타났고, 아동 행동 평정척도의 경우 0.92-1.00의 범위로 나타났다.

<표 2> 통합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내용 및 기대효과

단계/목표	회기	주제 (원리)	내용	기대효과
초기 단계 ◆관계 형성 ◆신체 자각		사전모임	오리엔테이션/사전검사	◆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1	비눗방울 그림 (안아주기/다루기/놀이하기)	· 비눗방울 손부채로 날리기 · 비눗방울 손백쳐서 터뜨리기 · 비눗방울에 물감을 넣어 붓기 · 도화지에 색 비눗방울 받기	◆ 자연스러운 눈맞춤과 신뢰감 형성 하기 ◆ 놀이에 즐거움 느끼기
	2	뽕튀기 과자 장신구 (안아주기/다루기/놀이하기)	· 뽕튀기 과자 먹여주기 · 뽕튀기 과자로 팔찌, 모자만들기 · 악세서리 하고 패션쇼하기	◆ 어머니의 돌봄을 경험하기 ◆ 놀이를 통한 긴장 이완하기
	3	밀가루 놀이 (안아주기/다루기/놀이하기)	· 밀가루 손으로 탐색하기 · 밀가루 종이에 펴고 그림그리기 · 분무기로 밀가루에 물뿌리기 · 핑거페인팅하기	◆ 흥미 유발하기와 친밀감 형성하기 ◆ 신체접촉을 통한 자연스런 상호작용하기
중기 단계1 ◆신체자각을 통한 자아인식 ◆대상관계 (애착)재형성	4	풍선 그림 (안아주기/반영/놀이하기)	· 풍선 탐색하기 · 풍선에 콩 넣어 놀이하기 · 풍선에 펜으로 그림 그리기	◆ 감각자극을 통한 신체 자각하기 ◆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하기
	5	진흙놀이 (퇴행/다루기/안아주기/놀이하기)	· 찰흙을 탐색하기 · 찰흙을 걸죽하게 만들기 · 몸과 팔·다리에 칠하기 · 도화지에 진흙으로 그리기	◆ 안전한 퇴행하기와 신체 탐색하기 ◆ 퇴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6	곡식그림 (대상제공/다루기/놀이하기)	· 곡식 탐색하기 · 쟁반에 곡식을 담아 놀이하기 · 곡식에 손가락으로 그림 그리기	◆ 신체인식과 신체사용을 체험하기 ◆ 아동의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하기
중기 단계2 ◆대상 표상 (내적실행모델) 수정 ◆긍정적인 모-아 상호작용 촉진	7	모래 놀이 (다루기/퇴행/대상제공/놀이하기)	· 마른 모래 탐색과 그림 그리기 · 젖은 모래 탐색과 그림 그리기 · 젖은 모래를 뭉쳐 성 만들기	◆ 신체접촉을 통해 친밀감을 증진하고 상호 작용 촉진하기
	8	손,발 본뜨기 (다루기/반영/대상제공/놀이하기)	· 손놀이(지붕, 나비)와 낙서하기 · 손과 발 본뜨기 · 손과 발에 그림 그리기	◆ 긍정적 돌봄 경험과 적절한 신체 사용하기 ◆ 신체인식과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하기
	9	칼라점도 놀이 (다루기/대상제공/놀이하기)	· 칼라점도 탐색하기 · 칼라 점도에 콩으로 꾸미기 · 칼라점도 조형물 만들기	◆ 감각자극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 경험하기 ◆ 성취 경험으로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하기
	10	신문지 놀이 (안아주기/다루기/대상제공/반영/놀이하기)	· 신문지 탐색하기 · 신문지 놀이(날리기, 덮기, 옷·모자 만들기) · 신문지 공 만들기 & 농구하기	◆ 신문지 탐색을 통한 부정적 감정 해소하기 ◆ 공놀이를 상호작용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11	찍기와 판화 (다루기/대상제공/놀이하기/반영)	· 로울러 탐색하기 · 채소 탐색하기 & 채소 찍기 · 우드락 판화 만들기	◆ 쉬운 놀이를 통한 성취감 느끼기 ◆ 협동하기와 상호작용 증진시키기
종결 단계 ◆자아 조절 ◆수정된 대상표상(내적 실행모델)의 적용	12	신체본뜨기 (다루기/대상제공/놀이하기/반영)	· 휴지로 몸 감기 & 뜯어내기 · 호일로 몸 감기 & 뜯어내기 · 아동 신체 본뜨기 · 어머니 신체 본뜨기	◆ 양육적 경험으로 정서적 안정감 느끼기와 공격적 감정 해소하기 ◆ 신체접촉을 통한 상호작용 촉진하기
	13	자연물 만다라 (다루기/대상제공/놀이하기)	· 자연물 탐색하기 · 자연물 시트지에 붙이기 · 곡물 시트지에 뿌리기	◆ 상호작용을 촉진하기와 신체조절 능력 향상시키기 ◆ 자기조절을 통한 자아인식 확대
	14	정원 꾸미기 (다루기/대상제공/놀이하기)	· 지점도 탐색하기 · 자연물로 꾸미기 · 조형물을 연결하여 공동 정원 꾸미기	◆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기 ◆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15	케익만들기 (다루기/대상제공/놀이하기)	· 생크림 탐색하기 · 생크림 빵에 바르기& 장식하기 · 촛불 켜고 소원빌기	◆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기 ◆ 프로그램의 종결 인식하기
		사후모임	프로그램 종결 인터뷰	◆ 전반적인 프로그램 평가

5. 자료 분석

먼저,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의 평가내용을 비모수적 통계분석방법인 Wilcoxon 부호순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Wilcoxon 부호순위 검증은 '비모수적 통계분석' 방법으로 모수검정에서의 쌍차 t검증과 같이 사전·사후 한 쌍의 표본을 비교하기 위한 검증방법이다.

둘째, 회기별 모-아 상호작용 변화를 보기 위해서 1, 3, 6, 9, 12, 15회기가 끝난 후 비디오 촬영 내용을 분석한 뒤 어머니 행동 변화와 아동의 행동 변화를 관찰·평가하였다. 결과는 프리드만 검증을 실시하였고, 변화과정을 표와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프리드만 검증은 '비모수적 통계분석' 방법으로 단일 집단 내의 여러 개의 종속표본을 비교하여 여러 종속표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III. 결과 및 해석

통합미술치료가 발달장애 아동의 모-아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실험결과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아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

1) 아동의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

통합미술치료가 아동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Wilcoxon 부호순위 검증의 통계적 결과는 다음의 <표 3>와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5사례 가운데 음의

<표 3> 사전·사후 아동의 상호작용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결과 (n = 5)

변인	음의 등위 (사후-사전)			양의 등위 (사후-사전)			S
	사례 수	평균 등위	등위 합	사례 수	평균 등위	등위 합	
	활동성 요인	0	0.00	0.00	5	3.00	
협조성 요인	0	0.00	0.00	5	3.00	15.00	7.50*
전체	0	0.00	0.00	5	3.00	15.00	7.50*

* p < .05

등위는 0사례, 양의 등위는 5사례로 프로그램 실시 후에 5 사례 모두 아동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아동의 사전·사후 상호작용 점수의 차이를 측정된 S값이 7.50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므로 아동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아동의 활동성 요인이 전체 5 사례 가운데 음의 등위는 0사례, 양의 등위는 5사례로 프로그램 실시 후에 5사례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사전과 사후간 유의미한 차이(S = 7.50, p<.05)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협조성 요인도 전체 5사례 가운데 음의 등위는 0사례, 양의 등위는 5사례로 프로그램 실시 후에 5사례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사전과 사후간 유의미한 차이(S = 7.50, p<.05)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의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

통합미술치료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Wilcoxon 부호순위 검증의 통계적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5사례 가운데 음의 등위는 0사례, 양의 등위는 5사례로 프로그램 실시 후에 5 사례 모두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어머니의 사전·사후 상호작용 점수의 차이를 측정된 S값이 7.50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므로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반응성 요인이 전체 5사례 가운데 음의 등위는 0사례, 양의 등위는 5사례로 프로그램 실시 후에 5사례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사전과 사후간 유의미한 차이(S = 7.50, p<.05)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시성 요인도 전체 5사례 가운데 음의 등위는 0사례, 양의 등위는 5사례로 프로그램 실시 후에 5사례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사전과 사후간 유의미한 차이(S =

<표 4> 사전·사후 어머니의 상호작용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결과 차이 비교 (n = 5)

변인	음의 등위 (사후-사전)			양의 등위 (사후-사전)			S
	사례 수	평균 등위	등위 합	사례 수	평균 등위	등위 합	
	반응성 요인	0	0.00	0.00	5	3.00	
지시성 요인	0	0.00	0.00	5	3.00	15.00	7.50*
전체	0	0.00	0.00	5	3.00	15.00	7.50*

* p < .05

7.50, $p < .05$)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일측면 부호순위 검증에 의한 결과는 통합 미술치료에 참여한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향상을 보였음을 시사한다. 즉, 본 프로그램이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증진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회기별 모-아 상호작용 차이 비교

통합미술치료 회기별 모-아 상호작용 변화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각 회기별로 '아동 행동 평정 척도'와 '어머니 행동 평정 척도'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기록한 비디오 내용을 분석하여 프리드만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프리드만 검증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제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1) 회기별 아동의 상호작용 차이 비교

회기별 아동의 상호작용 및 하위요인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가 <표 5>와 [그림 2]이다. 아동의 상호작용 *chi-square*는 15.86으로 아동의 상호작용은 회기별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동의 상호작용은 1회기 1.40, 3회기 2.50, 6회기 3.10, 9회기 4.40, 12회기 4.00, 15회기 5.60으로 회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활동성 요인 *chi-square*는 16.53으로 아동의 활동성은 회기별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동의 활동성은 1회기 1.40, 3회기 2.40, 6회기 3.10, 9회기 4.50, 12회기 4.00, 15회기 5.60으로 회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협조성 요인 *chi-square*는 12.13으로 아동의 협조성은 회기별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동의 협조성은 1회기 2.30, 3회기 2.40, 6회기 2.90, 9회기 4.50, 12회기 3.50, 15회기 5.40으로 회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 회기별 어머니의 상호작용 차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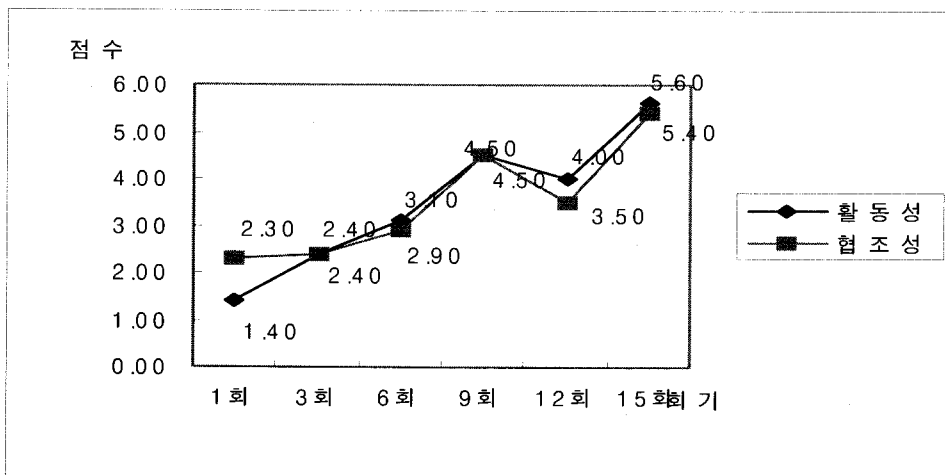
회기별 어머니의 상호작용 및 하위요인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가 <표 6>과 [그림 3]이다. 어머니의 상호작용 *chi-square*는 20.19로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회기별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1회기 1.30, 3회기 2.10, 6회기 3.20, 9회기 4.20, 12회기 4.20, 15회기 6.00으로 회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반응성 요인 *chi-square*는 20.29로 어머니의 반응성은 회기별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반응성

<표 5> 회기별 아동의 상호작용 및 하위요인 프리드만 검증 결과 차이 비교

(n = 5)

변인	회기별 평균 등위						chi-square	
	1회기	3회기	6회기	9회기	12회기	15회기		
아동 상호작용	1.40	2.50	3.10	4.40	4.00	5.60	15.86***	
하위요인	활동성 요인	1.40	2.40	3.10	4.50	4.00	5.60	16.53***
	협조성 요인	2.30	2.40	2.90	4.50	3.50	5.40	12.13**

df=4, *** $p < .001$,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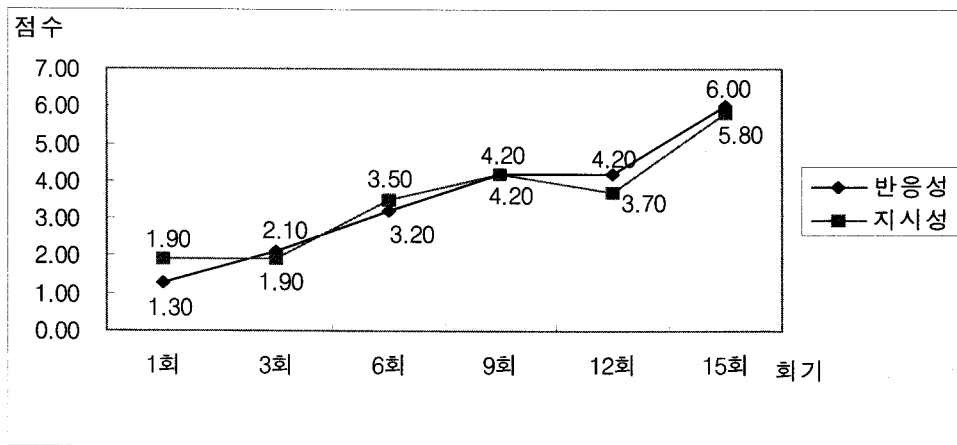
[그림 2] 회기별 아동의 활동성 요인 및 협조성 요인평균 등위 변화 그래프

<표 6> 회기별 어머니의 상호작용 및 하위요인 프리드만 검정 결과 차이 비교

(n = 5)

변인	회기별 평균 등위						chi-square	
	1회기	3회기	6회기	9회기	12회기	15회기		
어머니 상호작용	1.30	2.10	3.20	4.20	4.20	6.00	20.19***	
하위요인	반응성 요인	1.30	2.10	3.20	4.20	4.20	6.00	20.29***
	지시성 요인	1.90	1.90	3.50	4.20	3.70	5.80	17.20**

df=4, *** p<.001, **p<.01



[그림 3] 회기별 어머니의 반응성 요인 및 지시성 요인 평균 등위 변화 그래프

은 1회기 1.30, 3회기 2.10, 6회기 3.20, 9회기 4.20, 12회기 4.20, 15회기 6.00으로 회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지시성 요인 *chi-square*는 17.20으로 어머니의 지시성은 회기별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지시성은 1회기 1.90, 3회기 1.90, 6회기 3.50, 9회기 4.20, 12회기 3.70, 15회기 5.80으로 회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회기별 모-아 상호작용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아 상호작용은 대부분 안정된 상승을 나타냈으나, 12회기에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활동성 요인과 협조성 요인이 12회기에 9회기보다 낮은 평균 등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2회기에 통합미술치료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아동들의 신체 전체를 접촉하도록 하는 것에 대부분의 아동들이 거부적인 반응을 보였고, 어머니들이 거부하는 아동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 다른 회기보다 더 많이 지시하거나 성취하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미술치료 회기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모-아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통합미술치료가 발달장애 아동의 모-아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 발달장애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증진을 보기위해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곽아정, 1995; 김정미, 2001; 민성혜, 2000; 이선아, 2002; Mahoney, Powell, 1998)와 모-아 상호작용 증진에 관한 선행연구(김정미, 2001; 박량규, 1999; 임숙빈, 1997; 정수진, 2003), 초기 모-아 관계 경험에서 정서 발달을 잘 설명하고 있는 Winnicott의 대상관계이론, 발달장애 아동의 예술치료적 접근에 관한 선행연구(김미정, 1999; 김소정, 2003; 김수정, 2003; 김수정, 2004; 김해미, 2001; 서은영, 2004; 신은하, 2004; 이영훈, 2002; 이승아, 2003; 최진영, 2001; 하민경, 2003; 한영희, 2003)를 기초로 한 통합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이다. 본 통합미술치료 프로그램에는 어머니를 치료에 참여시켰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Friedrich, Cohen, Wilturme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고, 아동과 관련된 문제의 중심을 아동과 부모 사이의 상호작용에 두는 Greenspan

의 견해(신석호, 2000), 그리고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에 부모를 직접 참여시킨 임숙빈(1997), 박량규(1998), 김정미(2001), 정수진(2003)의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본 프로그램은 모의 치료 참여를 통해 모-아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을 보여주었다. 즉, 모와 함께한 통합미술치료가 모-아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이는 발달장애 아동의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서는 어머니와 함께 하는 놀이, 동작, 미술 등으로 통합 접근하는 방식이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효과검증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와 그 결과를 요약하고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미술치료가 발달장애 아동의 모-아 상호작용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어머니 상호작용 전체 그리고 하위요인 중 반응성과 지시성에, 아동 상호작용 전체 그리고 하위요인 중 활동성과 협조성에서 모-아 상호작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치료 참여를 통해 부모-아동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킨 김정미(2001), 박량규(1998), 이상희(2003), 임숙빈(1997), 정수진(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부모의 치료 참여를 통한 통합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모-아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통합미술치료가 모-아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점은 발달장애 아동의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서는 놀이, 동작, 미술 등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적 접근은 다양한 예술 매체를 사용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통합미술치료 회기별 모-아 상호작용의 차이에서는 어머니 상호작용과 아동의 상호작용이 각각 회기가 진행 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회기가 증가할수록 모-아 상호작용이 증진되었다는 점은 이상희(2003), 정수진(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러한 결과 역시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에 부모의 직접적인 참여가 효율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적 접근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상호작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도 12회기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12회기에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아동의 신체 전체를 이용하여 본뜨기를 하는 것으로 발달장애 아동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발달장애 아동의 감각적인 특징을 잘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접근 방법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을 증재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적 접근 방법들이 있었지만, 생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을 수정하려는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아동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상관계 접근을 이용한 신체활동 놀이를 적용한 정수진(2003)과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는 통합미술치료로 발달장애 아동의 최초의 사회적 관계의 대상이 되는 어머니와의 대상관계를 재형성하게 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발달장애 아동의 모-아 상호작용 증진에 대한 새로운 치료모형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 미술치료적 접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에 적용된 통합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신체접촉을 활성화하고 어머니와 자연스런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머니와의 대상관계 재형성을 통하여 긍정적인 모-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고, 다양한 예술매체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연습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되었다. 긍정적인 모-아 상호작용은 발달장애 아동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치료적 접근보다 아동의 발달을 증진시키는데 용이하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미술치료를 통해 긍정적인 모-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재료의 사용과 예술매체를 활용한 활동을 제공하여 이것들을 일상생활에 꾸준히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면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을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으로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아동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유사한 대상에게 여러 반복적인 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추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이 제한점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추후효과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모-아 상호작용 부분만을 검증할 수 있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모-아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미술치료를 활용하여 상호작용 외에도 모-아 애착증진,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넷째,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기간이 5주간이어서 단기 프로그램에 속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장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 연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주제어 : 모-아 상호작용, 통합미술치료, 발달장애

참 고 문 헌

곽아정 (1995). 어머니-유아의 상호작용 및 가정의 문해 환경과 유아 읽기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소정 (2003). 소집단 미술활동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수정 (2004). 연극치료가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승국·김옥기 (1995). 사회성숙도 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김이선 (1992).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이 언어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정미·성옥련 (2000). 부모-아동 상호작용 행동 평정척도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4), 895-904.

김정미 (2001). 부모-아동 반응성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현미 (2003). 민속놀이를 활용한 통합적 집단미술치료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민성혜 (2000). 어머니-자녀 상호작용과 유아의 인지-언어 발달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량규 (1999). 자폐 영·유아와 부모의 사회적 상호작용 발달을 위한 가족훈련 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은영 (2004). 비구조적 미술치료가 발달장애 아동의 자발적 발화의 증가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영혜 (2000). 치료놀이 I. 서울: 형설출판사

송영혜 (2000). 부모를 치료중재자로 하는 발달장애 아동 심리치료 모형 연구. 인간발달, 7(1), 65-79.

신석호 (2000).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치료적 접근 : Stanley Greenspan의 치료모델. 한국자폐학회 세미나 자료집.

신승녀·정여주·최재영 (2002). 유아미술치료. 수원: 수원여자대학교.

신승녀·정여주·최재영 (2002). 유아미술치료2. 수원: 수원여자대학교.

신은하 (2004). 감각활동중심 통합예술치료가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 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근매·최외선 (2003). 유·아동의 발달을 돕는 미술치료의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이금진, 이경미, 박현주 공역 (1997). 장애아동을 위한 창조적 놀이활동. 서울: 학지사

이상희 (2003). 모-아 치료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선아 (2002). 브레즐튼 신생아 행동평가법을 이용한 어머니 교육이 모-아 상호작용과 영아 행동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승아 (2003). 자폐아의 표현력 향상을 위한 무용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영훈 (2002). 자폐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움직임의 활용.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임숙빈 (1997).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모-아 애착증진 프로그램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정수진 (2003). 놀이치료가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아동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여주 (2003). 미술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최진영 (2001). 체육놀이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적응 행동 및 학습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하민경 (2003).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음악 활동시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영희 (2003). 미술치료를 통한 발달장애 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에 관한 연구-도예작업치료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 이근후, 강병조, 곽동일 외 역. 1995. 서울: 하나의학사).

CathyA. Malchiodi (1998). *The art therapy sourcebook..* McGraw-Hill. (미술치료. 최재영, 김진연 역. 서울: 조형교육, 2001).

Davis M. & Wallbridge D. (1981). *Boundary and space.* (울

- 타리와 공간. 서울 :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Mahoney, G. (1999). *Family/Child curriculum: A relationship focused approach to parent education/Early intervention*. tallmadge, OH: Family Child Learning center.
- Mahoney, G., & Powell. A. Modifying parent-child interaction: Enhancing the development of handicapped childre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2. 82-96.
- Mash, E. J., & Wolfe, D. A. (1999). *Abnormal child psychology*.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Winnicott. D.W. (1971). *Playing and reality* (놀이와 현실.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2007. 6. 18 접수; 2007. 11. 20 채택)

부록 1

단계별 모-아 상호작용의 변화

	초기단계	중기단계	종결단계
A와 어머니	<p>▷ 어머니는 A에게 항상 성취하기를 요구하는 교사 같았다. 어머니는 A가 안기고 껴안아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귀찮아했으며 아동의 행동에 지나치게 빨리 반응하였다.</p> <p>▷ A는 어머니가 지시하는 대로 반응하려고 노력했으나 타인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A는 재료를 이용하여 단순한 촉각놀이만을 했다.</p>	<p>▷ 어머니는 A와 함께 자연스런 퇴행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료 탐색에도 적극적이었고 어머니 자신이 미술활동을 즐거워하며 했다. 어머니는 A를 대하는 목소리나 눈빛도 부드러워졌고, 학습을 시키려는 모습도 감소했다.</p> <p>▷ A는 어머니에게 더욱 밀착하려고 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찰흙, 콩, 모래 등의 재료에 더욱 흥미를 느끼는 모습이었다.</p>	<p>▷ 어머니는 A에 대해 높은 성취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심리적으로 느긋해졌다. 어머니는 의도적으로 A가 반응을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p> <p>▷ 치료자에게도 관심을 보이고, 미술활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하였다. 또한 활동을 주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p>
B와 어머니	<p>▷ 어머니는 초기부터 B에게 따뜻한 모습이었고, B의 수준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 주는 모습을 보였다.</p> <p>▷ B는 어머니가 수용해주는 것을 알고 자주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했다. 감각적인 재료에는 관심을 보이거나 관심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다.</p>	<p>▷ 어머니는 B의 놀이에 협조하거나 B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B에게 맞게 자극과 재료를 제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B의 문제행동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는 없었다.</p> <p>▷ B는 감각을 자극하는 재료들에 흥미를 보였으며 어머니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정했다. 언어표현이 가능한 상황에도 펄쩍펄쩍 뛰며 화부터 냈다.</p>	<p>▷ 어머니는 여전히 B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아동의 문제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p> <p>▷ B는 어머니에게 화내는 횟수가 줄었으나 타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없었다. 감각적인 재료를 이용한 놀이에는 몰두하나 구체적 작품이 나오는 것은 힘들었다.</p>
C와 어머니	<p>▷ 어머니는 C와 눈맞춤을 하지 못했고, 주어진 재료와 활동에만 집중할 뿐 C와의 상호작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p> <p>▷ C는 첫 회기에 불안한 듯 의미없는 소리를 내며 돌아다녔고 활동이나 놀이에는 관심이 없었다. 회기가 거듭될수록 미술재료를 몸에 바르거나 뿌리는 촉각적 활동에 몰두하였다.</p>	<p>▷ 어머니는 C와 차별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날도 있었으나 여전히 자신만의 재료 탐색과 활동에 집중하느라 C의 요구에 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다.</p> <p>▷ C는 재료에 대한 촉각적 탐색은 계속 했으며, 치료자를 보며 웃거나 아이들에게 재료를 던지고 얼굴을 들이대는 관심을 표현하는 행동이 나타났다.</p>	<p>▷ 어머니는 여전히 도입단계에 서 자신이 활동과 작업에 몰두하였으나 치료자의 중재 후에는 C에게 적절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였다.</p> <p>▷ C는 모든 자극들에 무관심했던 초기와는 달리 어머니에게 먼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기도 하고 스스로 재료를 탐색하기도 했다.</p>
D와 어머니	<p>▷ 어머니는 지저분해지는 것을 싫어해서 재료를 만질 때도 손가락만 이용했다. 그동안 함께 놀아주지 않아서인지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서툴렀다.</p> <p>▷ D는 젖은 재료는 거부하고 마른 재료를 선호했다. 놀이 중에 어머니나 치료자가 개입하면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집중시간도 짧아서 활동이나 놀이보다는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았다.</p>	<p>▷ 어머니는 재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지기 시작했고, 또한 아이의 놀이를 존중해 주고 아이의 놀이에 참여하려고 노력했다. D가 거부하면 기다려주고 다시 반응을 보이면 아이에게 다가갔다.</p> <p>▷ D는 싫어하는 재료도 어머니가 상호작용을 시도하면 만졌다. 중기 후반부터는 다른 아이들의 행동을 일상생활과 미술놀이 시에 모방하였다.</p>	<p>▷ 어머니는 D의 반응에 따라 반응하면서 D를 미술놀이에 참여시켰으며, 아이의 행동에 즐거워하며 부드럽게 칭찬했다.</p> <p>▷ D는 미술놀이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사람에게 관심이 생겨서 치료자의 무릎에 와서 앉기도 했다. D는 지점토에 콩 박기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재료들을 조합하기 시작했다.</p>
E와 어머니	<p>▷ 어머니는 강박적으로 아이가 모든 것을 체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E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지시하고 E를 다른 아동과 비교했다.</p> <p>▷ E는 강박적으로 초인종 누르기, 볼고기와 같은 행동을 했다. E는 어머니의 요구와 지시에 잘 따랐다. 반면에 수행 후에는 광충광충 뛰며 의미없는 소리를 지르곤 했다.</p>	<p>▷ 어머니는 여전히 E에게 과도한 요구와 지시를 반복하였고, 계속 E에게만 주의를 두고 강박적으로 무엇인가를 시키려고 했다</p> <p>▷ E는 어머니와 놀이를 즐거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광충거리며 혼잣말을 하는 행동이 더 심해졌다. 그러면 서도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p>	<p>▷ 어머니는 치료자의 중재로 점차 E를 자유롭게 두면서 어머니가 E의 놀이에 참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을 불안해하면서도 E를 지지해주려고 했다.</p> <p>▷ E는 어머니가 자유를 허용한 후부터 광충 뛰기와 무의미한 말의 횟수가 줄었고, 단순한 미술놀이에서도 만족감을 느끼며 자발적으로 활동했다.</p>

부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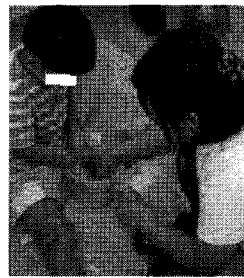
회기별 사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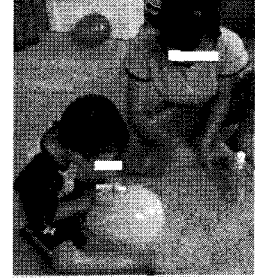
1회기



2회기



3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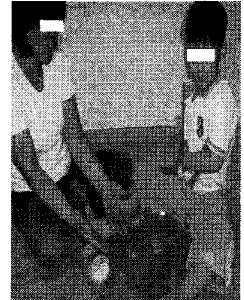
4회기



5회기



6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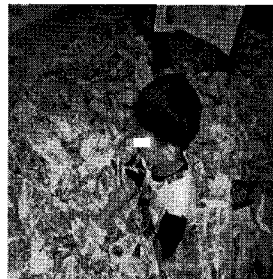
7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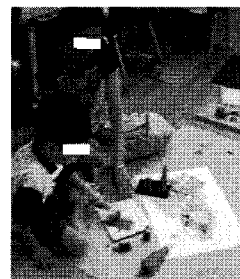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13회기



14회기



15회기